게임업계에 부는 '포괄임금제 폐지' 바람… 처우개선 기대

슈퍼캣·NHN 등 폐지 잇따라
구성원 복지향상, 처우 개선
새 정부 이후 폐지 분위기 고조

최근 국내 게임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업계 구성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정식 서비스 직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에 몰두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게 여겨져 왔다.

하지만 2022년 초부터 과감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구성원 복지 향상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중견 게임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게임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바람의 나라: 연'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슈퍼캣이 올해 1월 초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업계 전반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슈퍼캣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인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구성원들에게 시간 외 근로 수당을 1분 단위로 지급한다.

특히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석 관리 등의 근태 모니터링은 도입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선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전체적인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만 힘쓰기로 결정한 것.

이 밖에도 최근 자율 출퇴근제와 연 2회 계절 휴가, 연 300만 원의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등 구성원들의 복지를 강화한다.

또 NHN도 2022년부터 포괄임금제 폐지를 발표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개인의 근무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NHN 고유의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5월부터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재택근무형태 '수요오피스' 공식 운영을 발표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데브시스터즈가 오는 7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조직별로 선택적 재택근무를 추진하는 등 기업 및 업무 문화 강화에 나선다.

데브시스터즈를 비롯해 자회사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법정 표준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봉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성장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데브시스터즈 및 해외법인 전 직원 대상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그 외 비상장사인 개발 자회사에게도 법인별 스톡옵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와 시간차 제도 등 업무 집중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처우 향상 및 근무 환경 발전을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및 조직별 선택적 재택 근무, 전 직원 스톡옵션 부여, 복지 제도 확대 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팀과 개인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사들의 공통된 주요안건인 포괄임금제 폐지건에 대해 새정부가 들어선 다음 더욱 적극적인 분위기"라며 "하지만 게임업계 특성이라는 게 있어서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히기 까지는 오랜 노력과 적극적인 사측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직원과 사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5G 땡큐" 이통3사 1분기 깜짝실적… SKT·KT '호조', LGU+ '주춤'

5G 스마트폰 흥행으로 가입자 증가
영업익 1조3000억… 20.7% 늘어
KT, 6000억… 최대 분기실적 기록

이동통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3000억원대를 기록하면서 1조원 대를 회복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갤럭시 S22' 등 5G(5세대) 스마트폰의 흥행으로 수익성이 높은 5G 가입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밝힌 만큼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향후 실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는 1분기 영업이익을 4324억원, 6266억원, 2612억원을 기록, 3사의 영업이익 총합은 1조3202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20.7%가 증가했다.

통신 3사 중에서는 KT의 '역대급 실적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12년 만에 영업이익이 6000억원을 넘는 최대 분기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 /뉴시스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3사 합산 영업이익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KT는 매출 성장은 물론 자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 약 746억원이 반영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1%가 증가했다. SKT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5%가 증가한 우수한 성적표를 내놨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다. 이는 신규 플래그십 단말 출시 지연에 따른 단말수익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 사업 부문이 고루 성장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KT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 절반

KT는 전 사업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록했으며, 디지코(DIGICO) 전략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전체 가입자 중 5G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신 3사 중에 가장 높은 데 5G 가입자 비중은 50%에 달한다. 이에 이어 SKT가 47.5%를, LG유플러스가 44%를 차지했다.

KT만 유일하게 1분기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이 상승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KT의 ARPU는 3만2308원으로 전 분기 대비 1.5% 증가했다. 이에 반해 SKT는 3만401원을 기록해 전 분기와 비교해 1.1% 줄었다. LG유플러스는 2만9634원으로 같은 기간 2.3%가 감소했다.

SKT는 5G 가입자 순증폭이 통신 3사 중 가장 컸다. SKT의 1분기 가입자 수는 약 1088만명으로 전 분기보다 100만 여명이 늘었다. 이에 이어 KT는 695만명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57만명이 늘었으며, LG유플러스는 362만명으로 41만명이 증가했다.

◆무선 사업 전체 실적 견인

통신 3사 모두 LTE와 비교해 ARPU가 높은 5G 가입자가 늘어난 덕에 본업인 무선 사업이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했다. SKT은 무선 매출이 2조 587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2%가 늘어났다. KT도 텔코 B2C 매출로 2조 3535억원을 기록해 1.2% 증가했다. LG유플러스도 무선 사업에서는 1조 518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다.

SKT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4% 늘었다. KT는 탈(脫)통신 전략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해 디지코 신사업은 물론 B2B 통신업도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업 인프라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3624억원의 매출을 기록,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채윤정 기자 echo@

하늘길 열린 항공업계, 항공기 긴급 투입 등 운항 확대

대한항공, 인천~뉴욕 A380 투입
티웨이, 대형 항공기 출격 앞둬

국내 항공사들이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해외 여행객 증가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 또 취항 국가를 늘리고 일부 노선에 전세기를 띄우는 등 다양한 마케팅도 적극 진행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초대형 항공기 에어버스 A380을 인천~뉴욕 구간에 긴급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7월 1일부터 인천~뉴욕 노선에 A380 기종 투입을 결정하고 현재 예약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7월부터 이 구간 항공편을 주 1회에서 2회로 증편하는데, 오전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기존 B777-300ER에서 A380으로 변경한다. 오후 출발편은 현재와 같이 B777로 유지된다. 대한항공은 A380 투입으로 증편 없이 좌석 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도입한 대형항공기 A330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6월 중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에 A330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심의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성수기(6~9월) 주 3회 운수권을 신규로 배분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여 간 긴 휴식기를 갖은 항공사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실적 개선에 도 힘을 싣고 있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유럽과 미주 노선 등을 중심으로 주 30회 이상 증편할 계획이다. 운항 횟수는 현재 주 159회에서 주 190회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부산-싱가포르 운항 재개를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에어부산은 최근 초특가 항공권 이벤트 진행을 알렸다.

/양성운 기자 ysw@

LGU+, 디지털 광고·커머스 경쟁력 강화

CEO 직속 사업단으로 조직개편

LG유플러스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광고·커머스 분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조직 개편에서 신규사업추진부문 산하의 광고사업 조직을 CEO 직속의 사업단으로 개편했다.

자사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업무를 일원화하는 역량을 축적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다.

황현식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콘텐츠·데이터·광고 분야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 분야 전문가 이덕재 CCO(최고콘텐츠책임자, 전무)와 데이터 분야 전문가 황규별 CDO(최고데이터책임자, 전무)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했다.

지난 13일에는 광고사업단장으로 15년 이상 데이터 기반 광고·커머스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태훈 상무를 신규 선임하고 이 사업 분야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태훈 상무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을 거쳐 SK텔레콤에서 스마트 푸시형 광고상품 총괄과 신규 커머스 사업 'T-Deal(티딜)'을 주도한 T-Deal TF장을 역임했다.

/채윤정 기자